

텔레반 “외국군, 31일까지 철수하라”

대변인 “시한 연장 없다” 못 박아
“아프간 민간인 출국도 불허”
바이든 대통령 시한 준수 밝혀

그러나 텔레반이 예상보다 빠르게 아프간을 장악했고 각국이 시한 내에 자국민과 자국에 협력한 아프간인을 대피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미국 내에선 물론 동맹국에서도 시한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이날 아프간에서 미국인과 현지인 조력자를 대피시키고 군을 철수하는 작업을 예정대로 31일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화상회의에서도 아프간에서 임무를 예정된 시간에 끝낼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어 텔레반 무자히드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국가재건”이라면서 “미국이 아프간 내 숙련된 기술자와 전문가를 데려가는데,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와 학자들이 나라를 떠나지 말고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일해야 한다”라면서 “이들이 서방국 등 타국으로 가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아프간인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카불 공항의 혼란은 여전히 문제”라면서 공항 주변에 모여있는 아프간인들에게 “보복은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항으로 가는 길이 차단됐다”라면서 “아프간인은 그 길로 공항에 갈 수 없고 외국인만 공항에 가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프간인들이 (아프간을) 탈출하는 것이 불쾌하다”라면서 “더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텔레반이 외국인이 호송하거나 서방국으로 출국절차를 밟는 중인 아프간인까지 공항에 가는 것을 막을지는 현지점에서 불분명하다고 AP는 설명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텔레반 무자히드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출국을 우선순위를 부여한 아프간인에게 영향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출국 우선순위가 부여된) 아프간인들이 공항에 갈 수 있길 기대하며 텔레반에도 이런 기대가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단체 텔레반이 오는 31일로 제시한 외국군 철수와 민간인 대피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재차 못 박았다. 텔레반은 아프간인 출국도 막겠다고 했다.
AP·AFP 통신에 따르면 자비울라 무자히드 텔레반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카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스스로 정한 시한인 이날 말일까지 철군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20년간 이어온 아프간전을 끝내기라고 하고 지난 5월부터 동맹국과 함께 단계적으로 철군하기 시작했다. 또 오는 31일을 철군을 마치고 아프간서 임무를 끝내는 시한으로 잡았다.



독일 미 공군기지로 피신한 아프간 어린이들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텔레반에 장악된 아프가니스탄을 미국 수송기를 타고 탈출한 아프간 어린이들이 24일(현지시간)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사진기사의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총선 한달 앞 사민당 지지율 15년만에 보수연합 추월

메르켈 후임 총리 후보에 주목
독일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이 무려 15년 만에 지지율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보수연합을 앞섰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포르자가 RTL과 NTV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민당은 23% 지지율을 얻어 22%에 그친 보수성향 기독교민주당(CDU)-기독교사회당(CSU) 연합을 제쳤다. 녹색당은 18%로

뒤를 이었다.
사민당이 포르자 설문조사에서 기민-기사당 연합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사례는 200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기민-기사당 연합의 지지율이 22%까지 낮게 떨어진 것도 1984년 포르자 설문 이후 전례가 없다.
독일 연방의회 선거는 다음 달 26일 열린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2017년 총선에서 득표율 32.9%로 다수당이 된 뒤 사민당(20.5%)과 대연정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집권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4차례 총선을 보수연합의 승리로 이끌며 16년간 통치한 뒤 떠나는 메르켈 총리의 후임자가 누구일지 관심이 크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총리 배출을 기대하지만 여론은 최근 들어 계속 싸늘했다.
메르켈 총리의 퇴진을 앞두고 보수연합의 방향성을 둘러싼 분열이 커지는 가운데 벗어난 부진이 있었다. 기민-기사당 연합의 총리 후보로 선출된 아르민 라셰트 기민당 대표가 지지율 하락의 원흉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연합뉴스



“백신 접종 의무화 안된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식품의약국(FDA)이 전날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에 정식 승인을 내리면서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다. /연합뉴스

태아 걱정해 백신 안 맞은 미국 임신부 코로나로 아이와 함께 안타까운 사망

임신부 사망 속출...백신 접종 촉구

미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은 한 임신부가 코로나에 걸려 태아와 함께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24일(현지시간)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펜서콜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해일리 리처드슨(32)은 임신 7개월째에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바깥세상 빛을 보지도 못한 아이와 함께 눈을 감았다. 태아 걱정해 백신을 맞지 않았던 리처드슨은 지난달 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리처드슨은 기저 질환자가 아니었지만, 코로나 감염 이후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하며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3주 만에 사망했다.
그의 남편 조던 리처드슨은 “아내가 둘째 아이 임신 계획을 세운 뒤 백신을 맞지 않았다”며 “아내는 백신 접종이 태아에게 미칠 부작용을 걱정했었

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며 임신부들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리처드슨 가족의 안타까운 사례처럼 최근 미국에선 백신을 맞지 않은 임신부가 코로나로 숨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텍사스주에선 코로나에 걸린 30대 임신부 페이저 루이스가 아이를 출산한 뒤 사망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백신을 맞지 않은 임신부의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증하자 지난 11일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CDC는 임신 20주 전에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여성의 유산율은 정상 범위이고 백신을 맞았다고 유산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태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임신부의 백신 접종률은 지금까지 낮은 상황이다. CDC 집계 기준 백신을 맞은 미국 임신부는 전체의 23.8%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미얀마 군정, 저항세력 맞설 민병대 창설 추진

정보 제공자 보상도 검토

미얀마 군사정부가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저항세력에 맞설 민병대 창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AF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 최고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SAC)는 마을 단위의 민병대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계획을 논의중이라고 친군부 매체인 ‘글로벌 뉴라이트오브 미얀마’가 지난 24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SAC는 반군부 시위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항세력의 무기 조달과 훈련을 효과적으로 방해한 시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미얀마 전문가인 데이비드 매시슨은 군부에 대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반감을 고려하면 많은 사람들이 군부에 협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군부 입장에서 훈련을 받은 조력자가 향후 반대로 돌아설 수도 있어 딜레마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얀마 군정은 지난 2월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으나 도처에서 반군부 저항세력과 충돌을 빚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미얀마 시민들은 사냥총이나 사제 무기를 들고 군부의 폭압에 맞서고 있다.
이들전 중부 마계 지역의 한 마을에서는 무장한 시민들의 습격으로 미얀마군 30여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매체 이라와디는 보도했다. /연합뉴스

오피스텔, 신축부지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대지 515㎡(구 156형)
지하 1층, 지상 9층
46㎡(구 14형), 64호실
매매 - 18억5천만원
-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대지 582㎡(구 176형)
지하 1층, 지상 10층
49㎡(구 15형), 72호실
매매 - 21억원

중개환영. 010-3605-5000

근린상가, 월세 660만원

- ▶ **광양시 중동 해비치 호텔 옆**
- ▶ 6층 건물 中 4층 전체
- ▶ 분양평수 240평, 전용 147평
- ▶ **현재, 메리츠화재 임대 中**
- ▶ 매매 - 14억(대출 9억 포함)

중개환영. 010-3605-5000